

# 보병대의 부활 : 장궁과 장창



李 來 珠

육군사관학교 사학과 교수  
육군 중령, 역사학 박사

1. 그리스·로마의 무기와 전술
2. 등자, 말 그리고 기병대의 발전
3. 중세의 무기와 전술 : 기사와 갑옷
4. 보병대의 부활 : 장궁과 장창
5. 화약무기의 사용 : 소총 및 대포의 등장과 그 영향
6. 요새의 방어와 공격 : 축성술 및 공성술의 발전
7. 군사혁명의 시대 : 무기와 전술의 발전, 1560~1780
8. 나폴레옹 전쟁기 무기와 전술
9. 산업혁명과 군사기술의 발전
10. 총력전을 향한 경주, 1870~1914
11. 제1차 대전과 무기발달
12. 제2차 대전과 무기발달
13. 현대 첨단무기와 미래전쟁
14. 한국의 전통무기와 전술변화(I) : 조선시대 이전
15. 한국의 전통무기와 전술변화(II) : 조선시대 이후

## 시대적 배경

**나폴레옹** 이 활약하던 19세기 초의 전투 장면을 보면 대병력을 가진 부대들이 이동과 접전을 거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휘관들은 성냥갑 모양식으로 각 제대로 편성된 병력들을 이리저리 움직여 가며 열심히 작전을 구사하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다.

간혹 말탄 기병이나 육중한 화포와 씨름하는 포병을 발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두 발로 뛰다니는 보병이 전장을 가득 메우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보병부대가 전장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은 13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였다.

이 때부터 서유럽에서는 중세를 풍미한 중장갑 기병대의 위상이 약화되면서 로마 멸망 이래 뒷전으로 밀려났던 보병대가 서서히 그 위상을 회복하게 되었다. 역으로 중세 1천여년 간을 지배해 온 기병대의 위력이 이제 보조적인 위치로 밀려난 것이다.

중세의 핵심 무장력으로서 사회의 지배 계층을 이루고 있던 기사군은 14세기경에 이르면서 쇠퇴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군사적인 측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세사회 자체의 쇠락과 병행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중세의 마지막 두 세기인 14, 15세기에는 유럽 사회 전반에 걸쳐서 폭력적 갈등이 매우 고조되었던 시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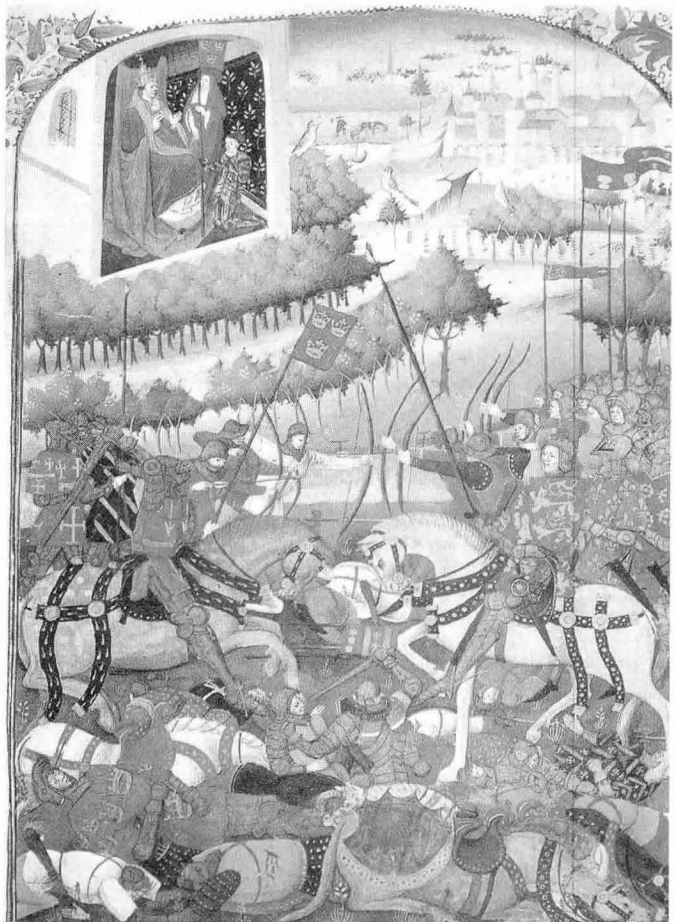
여기에는 영국과 프랑스간에 벌어진 백년전쟁(1337~1453년)과 같은 국가와 국가 간의 대결, 영국의 장미전쟁(1455~1485년)과 이베리아 반도내의 전쟁 그리고 이탈리아 중북부 도시국가들간의 전쟁 등과 같은 내전의 성격을 띤 분쟁 등 한마디로 유럽 각지에서 충돌이 난무한 시기였다.

이러한 가열되는 생존경쟁 속에서 각국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게 되었고, 이는 기병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세 군사 시스템에 대한 검토와 변화로 이어졌다.

한마디로 중세의 핵심적 무장세력이던 기사계급이 몰락하고 이의 기초를 이루고 있던 중세적 군사양식이 퇴조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로마제국의 멸망 이후로 그 위상이 약화되어 온 보병대가 재차 전장의 핵심전력으로 대두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유럽 지역에서 영국군의 궁수부대와 스위스 밀집보병군의 출현으로 나타났다.

중세시대 전쟁의 모습



이 궁수부대와 보병군은 기사군의 전술상 강점인 달리는 말의 속도에서 얻어지는 충격력을 무력화시키므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사군의 군사적 의미를 감소시켰던 것이다.

기사군을 무찌른 초창기 보병군은 이후 화약무기의 도입과 더불어 그 규모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어 용병군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절대왕정이 체계화되면서 상비군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군사양식의 출현은 단순히 신형무기나 전술 및 전략의 변화만으로 초래된 것은 아니었다.

좀더 근본적으로는 대규모 병력의 유지를 가능케 한 경제적 여건의 변화, 이 여건을 실제적인 재정능력으로 전환시킨 조세기구의 정비, 그리고 국왕의 상비군 보유를 인정하는 사회적 여론의 형성 등이 수반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 일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이 글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범위를 무기면으로 국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병대가 군의 핵심 전력으로 재등장하는데 여러 유형의 무기들이 동원되었지만,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영국 군이 사용한 장궁(longbow)과 스위스 군이 사용하여 유럽 각지로 확산된 장창(pike)이었다.

이외에 중세 봉건영주들의 세력 거점이던 성(城)의 전술적 가치를 와해시켜서 기병의 쇠퇴를 초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무기로 대포를 꼽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화약무기에 관한 다음 장에서 고찰할 것이다.

### 영국 군의 장궁(長弓)

보병대가 기병대를 대신하여 전장의 주력으로 등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346년에 영국 군과 프랑스

군이 격돌한 크레시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영국 보병대의 양 측면에 배치되었던 장궁병들이 프랑스가 자랑하던 무적의 기사군을 격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로마 시대 이래 기사군의 이점은 달리는 말의 가속력을 이용해 적진으로 돌격하여 적군의 진영을 교란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장궁부대의 출현으로 프랑스 군의 기병대는 돌격하여 영국 군 병력과 직접 접촉하기도 전에 꺾이고 말았던 것이다. 크레시 전투에서 프랑스 군은 무려 1,500명에 이르는 정예 기병대를 상실하였다.

기병 한 명을 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전장에서 그가 갖추어야 할 장비들을 고려할 시 이는 엄청난 손실에 해당하였다. 장거리에서도 기마병의 갑옷을 관통할 수 있는 장궁의 위력은 중세 이래 유지되어 온 전장의 균형을 뒤집기에 충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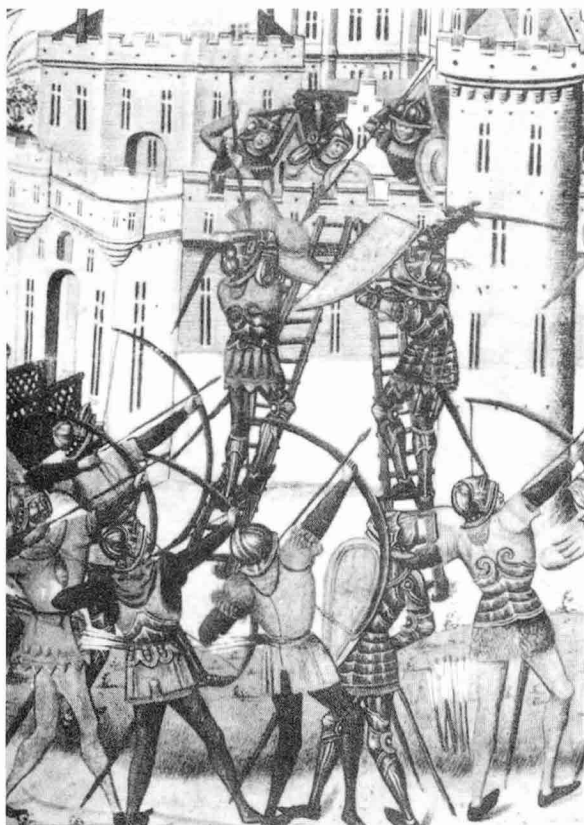
원래 장궁은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평민들이 사냥용으로 사용한 무기였다. 점차로 그 위력이 입증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사가 아닌 하층계급 출신 병사들의 무기로 정착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13세기 후반에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세가 웨일즈 지방을 평정할 시 이 장궁을 전술적으로 운용하여 그 위력을 과시하였다.

웨일즈와 잉글랜드 지방에서 자라는 주목나무나 느릅나무를 재료로 만든 장궁은 활의 길이가 1.9미터에 달할 정도로 길었고, 화살의 길이 역시 거의 1미터에 육박하였다.

활의 무게는 0.6~0.8킬로그램에 화살의 무게도 이에 버금갈 정도였기에 시위를 당기기 위해서는 45킬로그램 이상의 완력을 필요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궁에 비해 제조가 간단하였으며, 활 자체가 크다보니 여기에서 나오는 관통력이 대단하여 프랑스 기병대가 입고 있던 갑옷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영국의 장궁병

강철로 만들어진 소켓모양의 화살촉이 무적을 자랑하던 기병의 관급갑옷을 관통하여 치명상을 입혔던 것이다.

그러나 장궁이 갖고 있던 최대의 장점은 긴 사거리와 무엇보다도 빠른 발사 속도였다. 장궁의 사거리는 최대 약 350미터에 유효사거리는 230미터로 이는 중세 이래 가장 강력한 개인용 투사무기였던 석궁의 2배에 해당하였다.

장궁의 발사속도는 석궁에 비교될 수가 없을 정도로 빨랐다. 석궁의 경우에 숙달된 전문 궁수가 분당 2발을 발사할 수 있던데 비해 장궁병은 그 5~6배에 해당하는 분당 10~12발을 날려 보낼 수가 있었다.

숙달된 장궁병은 거의 연속적인 동작으로 활시위를 툇뺀에 닿을 때까지 끌어 당긴 다음에 조준 발사

를 거듭 하였다. 또한 그는 긴 길이로 인해 활시위가 머리칼에 엉키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를 짧게 깎았고, 양손에는 가죽으로 만든 보호대를 휴대하였다.

활 이외에도 그는 단검이나 간혹 끝 부분에 쇠를 박은 곤봉을 지참하였다. 물론 장궁이라고 장점만 갖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장궁병이 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훈련기간이 필요하였다.

즉 활쏘기에 필요한 힘과 조정기술의 습득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훈련과 반복적인 연습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크레시 전투를 비롯하여 푸아티에 전투(1356년), 아쟁쿠르 전투(1415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였던 영국 군 장궁부대는 15세기 말에 이르면서 그 효용성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

표면적으로는 프랑스와 벌인 백년전쟁(1338~1453년) 종전 직후에 영국내에서 일어난 장미전쟁(1455~1485년)으로 인해 우수한 장궁병들이 대거 손실된 점을 들 수가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화기의 발달과 이의 보편적 사용이었다. 한 명의 장궁병을 양성하는데 수년이 걸리는데 비해 소총병 양성에는 길어야 한 달이면 충분하였고, 소총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장궁에 버금가는 사거리와 관통력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최종적으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통치 말기인 1595년에 추밀원은 장궁을 잉글랜드 군의 공식 무기에서 제외하였다.

### 스위스 군의 장창

중세의 기병대를 격파하는 데 기여한 또 다른 무기는 장창(pike)이었다. 이는 길이가 5~7미터에 달하는 긴 손잡이에 나뭇잎 모양으로 크기가 약 25센티미터 정도인 강철 재질의 창날이 달려 있는 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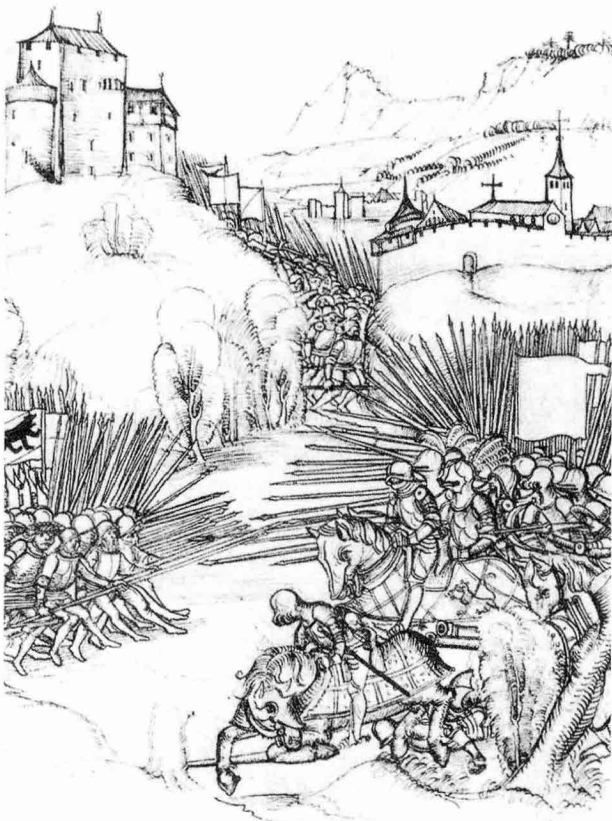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마케도니아군이 사용한 사

리사와 흡사한 무기라고 볼 수 있다. 원래 전투시에 적을 먼저 찌르기 위해 단검에 긴 막대기 자루를 달면서 시작된 창은 이후에 로마군의 필름과 같이 투척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일반적으로는 전투시 손에 들고 적을 찌르거나 휘둘러 베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역사상 등장한 여러 유형의 창들 중에서 중세 말에서 근대 초에 각광을 받은 장창이 미친 영향이 그런 대로 컸다고 볼 수 있다.

장창은 바로 긴 길이를 이용하여 보병병사가 기병을 대적하는 데 사용한 무기였다. 대표적으로 15~16세기에 스위스 군이 사용하여 커다란 효과를 보았고 급기야는 기병의 쇠퇴와 보병의 부활을 가져 온 무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스위스의 장창 밀집부대



긴 창을 들고 대열의 선두에서 4~6열로 밀집대형으로 포진하고 있는 경우에 아무리 강력한 기병이라고 해도 이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았다. 알프스 산악 지방 출신의 스위스 병사들은 바로 이 장창으로 무장하고 당시에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와 같은 강대국들의 기병대를 연파하여 유럽 전역에 그 명성을 떨치었다.

스위스에서는 14세기 초반부터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하여 독립투쟁을 전개한 지도자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장창을 주요 무기로 채택하고 그 기술적 운용 방안 등을 발전시켜 왔다.

왜냐하면 당시까지 도끼나 도끼창으로 무장하고 싸웠던 스위스 병사들은 이것으로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랜스(lance)로 무장한 오스트리아 군의 기병들을 대적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5세기에 이르면 스위스 밀집 창병부대는 300명을 기본 단위로 하여 사다리꼴 대형으로 진격하면서 방어와 공격을 감행하는 전투패턴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로써 전투부대의 측면 보호는 물론이고 실제로 적과 접전하는 전투대형의 선두에 그 즉시 교체병을 투입할 수 있었다.

바야흐로 장창부대의 작동 여부와 위력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하였다. 한 예로 스위스 군은 이 장창 밀집부대를 이용하여 1422년에 벌어진 밀라노 군과의 전투에서 당시에 이탈리아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던 도시국가 밀라노의 기병을 격파하여 유럽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로써 스위스 창병부대의 명성은 전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고, 곧 프랑스 부르봉 왕가에서 스위스 창병 보병대를 용병으로 고용하기에 이르렀다. 이 부대는 프랑스가 급속도로 유럽 제일의 군사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렇다면 왜 유독 스위스인들만이 이처럼 막강

한 장창 밀집부대를 구성할 수 있었는가? 먼 옛날 그리스 시대부터 창병부대는 죽음을 불사하는 불굴의 투지와 단결력을 그 생명으로 하였다.

장창으로 무장한 밀집보병대가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톱니바퀴와 같은 정확한 집단적 움직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 강철같은 기율, 그리고 불굴의 전투의지가 요구되었다.

적의 기병대가 접근하여 온갖 공격을 퍼부어도 꿈쩍하지 않고 철통같은 방어벽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창병 한 명 한 명의 결연한 의지가 전제되어야만 하였다.

바로 이러한 정신력이 유럽의 다른 어느 군대에서 보다도 스위스 군에서 강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의 군대가 주로 돈으로 산 용병으로 구성된 데 비하여 스위스의 창병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칸톤(州)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애국심으로 무장된 자유민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세 말부터 스위스인들은 척박한 산악지형으로 내세울 만한 생산물이 거의 없는 가난한 환경으로 인해 용병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되었다.

태생적으로 강인한 산악지방민들 인데다가 용병으로서 몸값을 올리려면 용맹성을 과시해야만 되었다. 당시에 유행한 “돈이 없는 곳에 스위스인도 없다”는 격언은 바로 이러한 스위스인들의 용병 전통을 함축하고 있다.

강인한 정신력과 엄한 훈련 덕분에 스위스 군은 평지이든 경사지이든 상관없이 정연한 대형과 빠른 기동성을 바탕으로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창병 밀집부대는 무엇보다도 기병부대를 상대로 한 방어전에서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 이는 장창의 사용법을 살펴보아도 짐작할 수가 있다.

왼손에 장창을 든 채로 창의 하단부를 왼쪽 무릎에 대고 오른발을 이에 맞추어 무릎높이로 고정시키는 자세로 공격해 오는 적 기병에게 창끝을 겨누는 것이 기본 전투자세였다. 이렇게 장창 밀집부대가 창이 숲

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기병대가 이를 돌파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였다.

물론 창이 긴 손잡이 덕분에 상대가 기병일때 뿐만 아니라 보병일때도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 이 장창병들은 16~17세기에 개인화기가 보병의 주무기로 등장한 이후에도 소총병들이 탄환을 재장전하거나 대형을 변경할시 적 기병대의 돌격으로부터 이들을 엄호하기 위해 계속하여 유지되었다.

스위스로부터 독일,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과 같은 주변국가들로 확산된 장창은 17세기 말경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보병용 무기로 각광을 받아 왔다.

하지만 18세기에 접어들면서 개인화기 총구에 단검을 부착한 총검(bayonet)이 소개되고 점차로 보편화되면서 장창의 시대도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16세기에 화승총과 같은 개인화기가 본격적으로 채택되면서 보병대의 발흥은 역사적인 대세가 되었다. 실제로 창병 밀집부대도 단독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기보다는 소총이나 다른 무기로 무장한 주력 보병부대를 엄호하는 보조부대의 개념으로 운용되었다.

개인화기의 생산이 가속화되면서 기병에 비해 엄청나게 값싼 비용으로 병사를 무장시킬 수가 있었고, 장기간의 양성기간이 요구되는 기병에 비해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단기간의 훈련으로 병사에게 소총 사용법을 숙달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짧은 훈련기간으로 대규모 병력에 대한 무장 및 전투력 구비가 가능해지면서 이 병력을 운용하여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고도의 집단 훈련이 요구되었다.

다시 말해 중세시대처럼 필요시에만 병력을 소집하여 전투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집된 상태로 있으면서 정교하게 고안된 부대 훈련을 숙달해야만 되었다. 보병대의 부활 및 대규모화와 더불어 군인의 전문성이 부각되었고 이는 곧 직업군인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防